

구역 예배 교안 2025.01.26

1. 신앙고백	다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2. 찬양과 경배	뒷면의 찬양 또는 준비해 온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시간 성령님의 크신 임재를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3. 기도	다함께 구역예배와 모임을 위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위해 통성으로 기도하고 인도자가 마무리 기도를 드립니다.(2번 찬양과 경배와 3번 기도는 연결하여 진행)
4. 말씀	본문: 로마서 12장 14-21절 제목: 세상에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5. 질문과 나눔	말씀을 듣고 새롭게 깨닫게 된 것이나 결단한 것이 있으면 나누어 봅시다.
6. 증거	1) 각 태신자와의 관계맺기 현황과 기도제목 나눔. 2) 전도 대상자를 생각나게 하시며, 만나게 하시고, 전도가 되도록 기도. 3) 구역 결석자, 구역모임 결석자에 대한 관심과 기도.
7. 치유와 회복의 시간	1) 각자의 긴급하거나 중요한 기도제목을 나눕니다. 2) 치유집중기도 - 치유를 위한 집중 기도가 필요한 분이 있으면 먼저 그를 위해 다함께 기도 3) 문제를 맡기며 기도 - 서로 나눔 기도제목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 4) 올 한해 믿음으로 성장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기도 5) 교회와 두 분의 원로 목사님과 담임목사님을 위한 기도 6) 구역의 활성화를 위해 7) 리더가 축복하며 마무리기도
8. 공지사항	
9. 주기도문	

세상에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 롬12:14-21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세상에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권면합니다. 성경에서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워하고 박해합니다. 주님은 세상에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첫째, 주님은 원수까지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14) 로마교회 성도들은 이교도들로 가득한 로마에서 수시로 조롱과 박해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저들을 조롱하고 박해하는 이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즉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원수까지 사랑해야 할 이유는 저들이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하나님의 큰 공훈과 사랑을 입어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또 성도가 원수를 사랑해야 할 이유는 원수를 심판하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그리스도인의 선함을 나타내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믿음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둘째, 주님은 이웃의 기쁨과 슬픔에 공감하라 말씀하십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15) 성도는 이기적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의 큰 자비를 입은 자답게 이웃의 기쁨과 슬픔에 공감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세상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이웃의 기쁨과 슬픔에 공감해야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 그 열린 마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웃의 기쁨과 슬픔에 공감하는 착한 행실을 통해 저들을 감동케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셋째,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겸손하라 말씀하십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말라”(16) 아마도 바울이 이 말을 할 때 당시 사회의 하층민이었던 노예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당시 자유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중에는 여전히 노예들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의 법이니까요. 하지만 노예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가 언제 예수님을 믿고 주 안에서 형제자매가 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주인 형세 하지 않고 종을 인격적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겸손입니다.

넷째, 주님은 모든 이들과 화목하라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18) 원수까지 저주하지 않고 축복할 수 있다면, 또 상대방의 기쁨과 슬픔에 공감할 수 있다면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겸손하다면 능히 모든 이들과 화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며 선한 일을 도모함으로 모든 사람과 화목하는 것이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에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볼 때 부족함이 있다면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의 은혜로만 또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힘으로만 세상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나타내고 이를 보는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경배와 찬양♫

(통일 411)

어린이
A. B. Warner, 1860

예수 사랑하심을

Jesus loves me, this I know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요 15:9)

563

CHINA: 7.7.7.REF.
W. B. Bradbury, 1862

보통으로

1.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2.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3.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4. 세상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우 리 들 은 약 하 나 예 수 권 세 많 도 다
우 하 늘 문 을 여 시 고 들 어 가 게 하 시 네
높 은 보 좌 위 에 서 낮 은 나 를 보 시 네
세 상 떠 나 가 는 날 낮 천 국 가 게 보 하 소 서

후렴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쉬운 기타코드 (capo=1st) Eb → D Bb → A Ab → G

♫경배와 찬양♫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고형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인재안에 갇혀 내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영 흥 증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드립니다

Copyright (c) 고형원 . Adm. by KCMCA. All rights reserved. Used by permission.

구역 모임 교안 2025.01.26

1. 아이스 브레이크	<p>*눈치게임: 모인 사람의 숫자만큼(예:5명이 모였으면 4번까지) 서로 눈치를 보면서 일어나거나 번호를 외치며 손뼉을 치는 게임입니다.</p> <p>*별칭 해당자: 마지막까지 번호를 외치지 못하거나 일어나지 못한 사람, 동시에 같이 외치거나 함께 일어나는 사람</p>
2.찬양과 경배	<p>뒷면의 찬양 또는 준비해 온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시간 성령님의 크신 임재를 기대하며 찬양합니다.</p>
3.기도 (통성으로)	<p>다함께 구역예배와 모임을 위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위해 통성으로 기도하고 인도가 마무리 기도를 드립니다. (2번 찬양과 경배와 3번 기도는 연결하여 진행)</p>
4.은혜의 나눔	<p>한 주 동안 은혜 받은 내용이나 응답받은 기도제목에 대해서 구역 식구들 앞에서 함께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p>
5.말씀의 나눔	<p>본문: 로마서 12장 14-21절 제목: 세상에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p>
6.질문과 나눔	<p>1) 직장 and 사업장과 동네에서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고자 할 때 어떤 점이 가장 힘들습니까?</p> <p>2) 오늘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할 때 어떤 모습이 자신에게 가장 필요합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p> <p>3) 말씀을 듣고 새롭게 깨달은 것이나 결단한 것을 나누어 봅시다.</p>
7.증거	<p>1) 각 태신자와의 관계맺기 현황과 기도제목 나눔.</p> <p>2) 전도 대상자를 생각나게 하시며, 만나게 하시고, 전도가 되도록 기도.</p> <p>3) 구역 결석자, 구역모임 결석자에 대한 관심과 기도.</p>
8.치유와 회복의 시간	<p>1) 각자의 긴급하거나 중요한 기도제목을 나눕니다.</p> <p>2) 치유집중기도: 치유를 위한 집중 기도가 필요한 분이 있으면 먼저 그를 위해 다함께 기도</p> <p>3) 문제를 맡기며 : 서로 나눔 기도제목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p> <p>4) 올 한해 믿음으로 성장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기도</p> <p>5) 교회와 두 분의 원로 목사님과 담임목사님을 위한 기도</p> <p>6) 구역의 활성화를 위해</p> <p>7) 리더가 축복하며 마무리기도</p>
9.광고 및 주기도문	

세상에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 롬12:14-21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세상에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권면합니다. 성경에서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워하고 박해합니다. 주님은 세상에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첫째, 주님은 원수까지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14) 로마교회 성도들은 이교도들로 가득한 로마에서 수시로 조롱과 박해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저들을 조롱하고 박해하는 이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즉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원수까지 사랑해야 할 이유는 저들이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하나님의 큰 공훈과 사랑을 입어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또 성도가 원수를 사랑해야 할 이유는 원수를 심판하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그리스도인의 선함을 나타내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믿음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둘째, 주님은 이웃의 기쁨과 슬픔에 공감하라 말씀하십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15) 성도는 이기적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의 큰 자비를 입은 자답게 이웃의 기쁨과 슬픔에 공감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세상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이웃의 기쁨과 슬픔에 공감해야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 그 열린 마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웃의 기쁨과 슬픔에 공감하는 착한 행실을 통해 저들을 감동케 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셋째,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겸손하라 말씀하십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말라”(16) 아마도 바울이 이 말을 할 때 당시 사회의 하층민이었던 노예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당시 자유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중에는 여전히 노예들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의 법이니까요. 하지만 노예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가 언제 예수님을 믿고 주 안에서 형제자매가 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주인 행세 하지 않고 종을 인격적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겸손입니다.

넷째, 주님은 모든 이들과 화목하라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18) 원수까지 저주하지 않고 축복할 수 있다면, 또 상대방의 기쁨과 슬픔에 공감할 수 있다면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겸손하다면 능히 모든 이들과 화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며 선한 일을 도모함으로 모든 사람과 화목하는 것이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에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볼 때 부족함이 있다면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의 은혜로만 또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힘으로만 세상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나타내고 이를 보는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경배와 찬양♫

(통일 411)

어린이
A. B. Warner, 1860

예수 사랑하심을

Jesus loves me, this I know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요 15:9)

563

CHINA: 7.7.7.REF.
W. B. Bradbury, 1862

보통으로

1.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2.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3.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4. 세상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교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우하늘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높은보좌 위에서 낮은나를 보소서
세상떠나가는 날 낮천국가게 보소서

후렴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쉬운 기타코드 (capo=1st) E^b→D B^b→A A^b→G

♫경배와 찬양♫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고형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인자함에 감혀 내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영 흥 증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드립니다

Copyright (c) 고형원 . Adm. by KCMCA. All rights reserved. Used by permission.